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17>

JCCT 2018-2-3

간호학생의 대상자 교육후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정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심미정

MiJung Sim

요약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에게 제공한 교육경험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대상자 교육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및 자신감 부족 등 이었다. 교육실시후 교육경험 만족도는 3.84점, 임상실습만족도 4.00점, 자아효능감 2.68점으로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경험의 만족도는 교육방법과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자의 태도, 실습만족도, 실습장소에 따라, 자아효능감은 성적, 이론교육의 만족도, 교육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실습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간호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방법과 실습지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간호학생, 교육경험만족도, 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tudent's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Maternity nursing practice. As the result, The nursing students had difficulties in accessing the patient, education time, and lack of self-confiden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with method of education, time of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maternity nurs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with attitude of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place, self-efficacy with grades, satisfaction of maternity nursing, practice place.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maternal nursing practice, we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hospital staff and propose it as a strategy of teaching method and practice guidance reflecting the need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1. 서론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임상실무능력 함양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정희원,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 2018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3일

Received: January 2, 2018 / Revised: January 22, 2018
Accepted: February 3, 2018
*Corresponding Author: jungs@gh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Korea

실습교육과정은 국가고시 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일부 과목에서는 실습교과목의 학점 및 내용에 적절한 실습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환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함양을 위한 방안이 미진한 실정이다[1].

모성/여성건강간호학은 임신, 출산, 산육과정을 경험하는 여성과 여성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과 그 가족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해결하는 이론적 지식과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출산율의 저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강화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 등으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시 대상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간호사정, 간호문제 확인, 간호중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학생이 분만실을 실습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분만으로 진행되고, 대상자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분만과정을 관찰하거나 어떠한 간호중재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론교육이나 실습시 분만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전공 교수들의 전문지식과 교수학습법 및 임상경험과 현장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상황중심 학습법을 활용했을 때 실습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 높은 비용의 고충실도(high fidelity)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기 어렵고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운영시 필요한 인력, 시간과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

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은 간호교육 일원화와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기관의 자격조건, 현장실습지도 방법, 시간, 지도자의 자격조건, 실습목표 및 학습성과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3]. 이에 각 대학은 학생간호사로서 간호학 실습교과목에서 설정한 학습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내 부속 병원이 있거나, 학교재단내 대학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간호학과는 안정된 실습지 확보와 실습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모성간호학 실습은 간호대학의 밀집과 학생수의 증가, 출산율 저하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와 분만실

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점차 여성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1개 병원에 최소 3-6개 이상 간호대학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어,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질적인 실습지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나미, 노기옥의 연구[4]에서도 조사된 바, 분만실 임상실습은 대부분 관찰위주로 진행되고 제한된 영역에서만 직접수행과 보조적수행을 경험하며, 실습병원의 특성에 따라 정상분만을 전혀 관찰하지 못하거나, 고위험 임신부를 접해 본 적이 없는 등 실습경험의 격차가 크며, 실습만족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5].

모성간호학 실습환경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다른 전공분야보다 급격히 변화하고 열악해지기 때문에 병원과 대학간 win-win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전문병원이나 특화된 병원은 간호사 인력 수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학에 실습지를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정된 인력확보를 위한 일종의 선투자자의 의미도 크다. 그러나 대학은 산업체로부터 안정된 실습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실습학점의 획득 기회를 얻지만, 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실습지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간호중재와 관련된 대상자 교육을 충분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실습목표 수행과정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요구 혹은 문제 확인 후 간호중재의 방안으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대상자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발표한 자료는 문헌에 근거하여 수정한 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대상자들은 Q-Code를 활용하여 분만, 산육, 제왕절개분만 후 관리 등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맡은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수행능력의 향상과 실습의 효율화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6].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주요요인으로, 긍정적 혹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7].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과 실습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아효능감 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포함

시키고자 한다.

II.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성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경험한 대상자교육과 관련된 요인, 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을 확인함으로써 모성간호학 실습교육의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 교육후 교육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다.
- 모성간호학 실습 관련 특성과 교육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전문대학교내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119명으로 모성간호학실습이 종료된 2017년 6월 16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성간호학 이론 교육은 3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어 4학년 1학기에 총 6학점으로 운영하며, 모성간호학실습은 2학점으로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모성간호학 실습의 학습목표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포함하여 4개로 설정하였고,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실습관련 인증평가기준에 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다.

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는 모성간호학 실습 중 대상자의 간호중재 방안으로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후 대상자의 반응 및 피드백, 교육 관련 내용,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아효능감, 교육자 성찰 등을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체 학업성취정도, 모성간호학 이론교육의 만족도, 실습시기, 대상자 교육장소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교육경험 만족도는 교육실시 경험,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지도방법, 보고서 작성 등 총 6항목으로 만족도 정도는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효능감은 Kim[8]의 일반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Kim, Chun과 Choi[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925이다.

실습만족도는 Lee[10]에 의해 개발되고 이성실, 권미경[11]에 의해 수정보완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실습자 태도 1문항, 실습자 만족도 4문항, 실습내용의 적합성 2문항, 실습에 대한 성취도 5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735이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ver.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경험 만족도, 자아효능감 및 실습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3.7세이며, 범위는 최저 20세에서 최고 56세 이었다. 자신이 인지한 학업성취정도는 보통이 67명(56.3%), 우수함 34명(28.6%), 우수하지 못함 18명(15.1%) 순으로 나왔으며,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만족함 85명(71.4%), 매우 만족함 14명(11.8%), 보통 20명(16.8%)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임상실습 시기는 동일한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2학기에 운영하므로 3학년 2학기 60명(50.4%), 4학년 1학기 59명(49.6%)이었고,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장소로는 병동 58명(48.7%), 분만실 50명(42.0%), 기타 11명(9.2%)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과 관련된 항목

연구대상자가 임상에서 교육대상자 선정시 겪는 어려움은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가 87명(73.1%),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17명(14.3%),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10명(8.4%) 순으로 나왔다. 선정된 교육주제로는 분만후 자궁마사지 24명(20.2%), 산후우울증 20명(16.8%), 모유수유, 유방관리 14명(11.8%) 순이었으며, 교육내용 작성시 활용한 자료로는 교과서 및 강의내용 83명(69.7%), 인터넷 검색 21명(17.6%) 등이었다.

교육방법 선정시 도움이 된 것으로는 교수의 지도 58명(48.7%), 개인의 창의적 생각 25명(21.0%), 기존자료(먼저 발표한 자료, 모형 등) 19명(16.0%) 순이었고, 본 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 경험으로는 1회 55명(46.2%), 없다 35명(29.4%) 순이었고, 교육실시전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75명(36.6%),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73명(35.6%), 자신감 결여 18명(8.8%) 순으로 나왔다. 교육실시시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의 반응 44명(27.2%), 자신감의 부족 38명(23.5%),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34명(21.0%) 순이었고, 교육시 대상자의 반응은 관심을 갖고 잘 청취함 51명(42.9%), 교육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 42명(35.3%),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 16명(13.4%) 순으로 나왔으며, 교육후 본인의 성장로는 교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57명(47.9%),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44명(37.0%), 교육이 어렵다 15명(1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교육실시후 교육경험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자아효능감

연구대상자들이 교육실시후 교육경험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3.84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교육내용 3.91점, 교육방법 3.88점, 교육실시 경험 3.83점, 지도방법 3.82점, 보고서 작성 3.82점, 대상자 선정 3.78점 순으로 나왔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4.01점이며 세부항목은 실습자 태도 4.42점, 실습에 대한 성취도 4.00점, 실습자 만족도, 실습내용의 적합성 3.96점 순으로 높게 나왔다. 자아효능감은 4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2.68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자아조절 효능감이 2.73점, 과제 난이도 선호 2.66점, 자신감 2.64점 순으로 나왔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 경험의 만족도

대상자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 중 세부항목에서 교육방법과 실습시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421$,

$p=.017$), 이는 4학년 1학기에 실습을 한 학생이 3학년 2학기에 한 학생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t=4.122$, $p=.000$), 대상자 선정($t=3.505$, $p=.001$), 교육내용($t=3.726$, $p=.001$), 교육방법($t=3.213$, $p=.004$), 지도방법($t=2.359$, $p=.026$), 보고서 작성($t=3.050$,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세부항목과 일반적 특성의 이론교육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실습자 태도($t=2.009$, $p=.047$), 실습자 만족도($t=2.498$, $p=.019$)로 동일 이론과목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실습태도와 실습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 교육장소와의 관계에서는 실습내용의 적합성($F=5.810$, $p=.004$), 실습에 대한 성취도($F=10.36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학업성취정도는 자아조절효능감($F=5.055$, $p=.008$), 과제난이도 선호($F=3.119$, $p=.048$)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이 좋은 군이 자아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론교육만족도는 자아조절효능감($F=2.188$, $p=.036$)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군이 자아조절효능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 교육장소에 따라 자아조절효능감($F=3.406$, $p=.037$)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V. 논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모성간호학 실습에서 간호학생이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아효능감 정도를 조사하여 추후 모성간호실습의 지도방향과 목표설정을 수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실습교과목 운영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실습관련 인증평가기준에 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다. 실습기관은 G시에 소재한 2개 여성전문병원으로 대학과 긴밀한 협약관계를 맺고 호의적이지만, 대상자의 특성상 직접적인 간호, 간호행위의 관찰

등은 제한적이다. 여성건강간호학 실습현황을 분석한 김중임, 강희선, 박소미 등[2]의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은 대상자와의 접촉과 간호업무를 학습하는 시간보다 잡무를 하거나 '벽의 불박이'처럼 서 있거나 책상에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상자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학생 뿐만 아니라 의대생도 산부인과 임상실습시 정해진 실습기간 동안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기회의 우연성, 관찰 위주의 실습, 임상 경험 기회의 축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관찰기회의 감소, 산모와 태아의 안전도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12]과 유사한 상황이다.

실습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호학생이 경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선정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가 73.1%,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14.3% 순으로 나왔다. 산부인과 대상자의 특성이 매우 예민하고, 사생활의 노출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간호학생들이 대상자와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심스러움 혹은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교육주제는 분만후 자궁마사지, 산후우울증, 모유수유, 유방관리 순이었다. 전나미와 노기옥[4]의 조사에 의하면 분만실에서 임상수행은 대부분 관찰이었고, 교육 및 상담과 산후간호는 매우 낮은 수행을 보였다. 김중임 등[2]의 연구에서는 자궁저부 마사지, 모유수유교육, 유방울혈 간호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생들이 교육시 활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인쇄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거나, 인형 활용, 유방과 자궁모형의 제작, 판넬 등을 만들어 시각적 자극을 할 때 대상자의 반응이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했다.

대상자가 최종 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 경험이 있으면 더 자신감을 가졌으며, 교육실시전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순으로 나왔다. 교육실시시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의 반응, 자신감의 부족,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교육 후 학생 자신의 성찰로는 교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교육이 어렵다 등으로 나왔다. 임상에서의 간호수행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수행자신감이 더 높고[15], 반복수행 경험을 통해 불안감은 감소되고 자신감이 증진되고 사고를 발생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16]. 반면에 3년제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수행정도

를 분석한 연구[17]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오히려 수행능력의 인지도가 더 낮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대부분 간호학생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시에는 기술습득이나 지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은 대상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 염려, 놀람, 당황스러움, 무능, 불편함 등을 느끼고, 낮은 환경에서의 자신감 부족, 미숙한 의사소통 기술, 지식부족 등으로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고 하였다[18]. 암환자와 간호사의 중재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전략을 분석한 연구 결과[13],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간호행위, 처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간호사의 바쁜 업무로 인해 적절한 정보 전달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조무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시간 부족과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육의 일부는 간호학생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ho와 Kwon[14]이 10개 대학의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뇨교육 수행이 50.5%, 당뇨교육의 관찰이 46.5%로 임상현장에서 간호학생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려고 할 때 거부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직접적 실습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 교육과정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등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이나 모의환자를 통한 실습이 병행된 교육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대상자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 중 교육방법과 실습시기는 3학년 2학기보다 4학년 1학기에 실습한 학생군이, 이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전반적인 교육경험과 관련된 항목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임상실습만족도 중 실습태도와 실습자 만족도는 이론과목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실습내용의 적합성과 실습에 대한 성취도는 실습장소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왔다. 김윤미 등의 연구[5]에서도 분만실에서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분만실에서 분만 관찰 혹은 보조적 참여의 기회를 갖는 반면, 병동에서는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직·간접적인 간호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아효능감의 세부항목 중 자아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는 성적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이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군이 자아조절효능감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교육장소에 따라 자아조절효능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오윤경[19]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실습교육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교육방법의 하나로 TBL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20]으로 나와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소영, 임선영, 최혜미의 연구[21]에서 간호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보다 임상실습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다 하였는데, 실습환경이 더욱 열악한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간호중재를 시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학생들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은 대상자 교육경험에서 자신감과 실습만족도는 평균이상이었다. 그러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주요 요인인 자아효능감은 비교적 낮게 나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에게 제공한 교육경험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대상자를 교육할 때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및 자신감 부족 등이었으나, 교육후 성찰은 교육접힘을 통해 자신감의 향상, 충분한 교육준비 등으로 나왔다. 교육실시 후 교육경험 만족도는 3.84점, 임상실습만족도 4.00점, 자아효능감 2.68점으로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경험의 만족도는 교육방법과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자의 태도, 실습만족도, 실습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효능감은 성적, 이론교육의 만족도, 교육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간호학생들은 모성간호학 실습시 직접적 간호수행과 관찰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간호사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기본적인 대상자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실습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간호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방법과 실습지도 방안의 한 전략으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간호학생이 실습현장에서 수행하거나 참여 가능한 실습내용을 심층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9명)

변수		수(%)	M(SD)	범위
나이(세)			23.7(4.7)	20~56
학업성취	우수함	34(28.6)		
	보통	67(56.3)		
	우수하지 못함	18(15.1)		
이론 교육의 만족도	매우 만족함	14(11.8)		
	만족함	85(71.4)		
	보통	20(16.8)		
실습시기	3학년 2학기	60(50.4)		
	4학년 1학기	59(49.6)		
교육장소	분만실	50(42.0)		
	병동	58(48.7)		
	기타	11(9.2)		

표 2.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과 관련된 항목

Table 2. Variables of related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N=119명)

변수		n(%)
대상자 선정시 어려움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	87(73.1)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10(8.4)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17(14.3)
	간호사의 협조가 잘 안되어	3(2.5)
	기타	2(1.7)
교육주제	분만전 무통분만(무통수사)	6(5.0)
	분만전 호흡법	5(4.2)
	분만후 산후출혈	7(5.9)
	분만후 자궁마사지	24(20.2)
	제왕절개분만후 간호관리	6(5.0)
	오로관리	13(10.9)
	좌욕관리	9(7.6)
	모유수유, 유방관리	14(11.8)
	영양관리	3(2.5)
	산후운동	10(8.4)
	산후우울증	20(16.8)
기타	2(1.6)	
교육내용 작성시 활용한 자료	교과서 및 강의내용	83(69.7)
	인터넷의 파워블로거	2(1.7)
	인터넷 검색	21(17.6)
	논문	4(3.4)
	병원의 소책자, 팸플릿 등	8(6.7)
기타	1(0.8)	
교육방법	교수의 지도	58(48.7)

선정시 도움이 된 것	개인의 창의적 생각	25(21.0)
	동료, 친구의 도움	8(6.7)
	인터넷을 보고	7(5.9)
	기존자료(먼저 발표한 자료, 모형 등)	19(16.0)
사전 교육회수	기타	2(1.7)
	없다	35(29.4)
	1회	55(46.2)
교육 실시 전 어려운 점	2회	24(20.2)
	3회 이상	5(4.2)
	자신감 결여	18(8.8)
	교육내용의 부족	8(3.9)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75(36.6)
	간호사의 비협조적 태도	12(5.9)
	두려움	6(2.9)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73(35.6)
교육 실시 시 어려운 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	12(5.9)
	기타	1(0.5)
	대상자의 반응	44(27.2)
	교육내용의 부실	9(5.6)
	자신감의 부족	38(23.5)
	교육환경	28(17.3)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34(21.0)
교육시 대상자의 반응	준비부족	5(3.1)
	기타	4(2.5)
	관심을 갖고 잘 청취함	51(42.9)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	16(13.4)
	교육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	42(35.3)
교육 후 본인의 성찰	관심이 없거나 지루한 반응	9(7.6)
	기타	1(0.8)
	교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57(47.9)
	교육이 어렵다	15(12.6)
	시간낭비라고 생각함	3(2.5)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44(37.0)

표 3. 교육실시후 교육경험의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
효능감

Table 3. Mean score for Satisfaction of the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after patient
education (N=119명)

변수		M(SD)	범위
교육경험 만족도	교육실시 경험	3.83(.59)	1-5
	대상자 선정	3.78(.70)	1-5
	교육내용	3.91(.62)	1-5
	교육방법	3.88(.70)	1-5
	지도방법	3.82(.62)	1-5
	보고서 작성	3.82(.64)	1-5
임상실습 만족도	총계	3.84(.54)	1-5
	실습자 태도	4.42(.55)	1-5
	실습자 만족도	3.96(.57)	1-5
	실습내용의 적합성	3.96(.58)	1-5
	실습에 대한 성취도	4.00(.51)	1-5
	지도방법	3.82(.62)	1-5
자아효능 감	보고서 작성	3.82(.64)	1-5
	총계	4.01(.48)	1-5
	자신감	2.64(.35)	1-5
	자아조절 효능감	2.73(.27)	1-5
	과제 나이도 선호	2.66(.34)	1-5
	총계	2.68(.25)	1-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 경험의 만족도

Table 4.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명)

내용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		
	3/2학기 (60)	4/1학기 (59)		만족 (99)	보통 (20)	
	M(SD)	M(SD)	t(p)	M(SD)	M(SD)	t(p)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	3.77 (.56)	3.90 (.61)	-1.225 (.223)	3.92 (.57)	3.40 (.50)	4.122 (.000)
대상자 선정	3.67 (.68)	3.90 (.69)	-1.847 (.067)	3.87 (.68)	3.35 (.59)	3.505 (.001)
교육내용	3.80 (.63)	4.02 (.60)	-1.917 (.058)	4.00 (.59)	3.45 (.61)	3.726 (.001)
교육방법	3.73 (.69)	4.03 (.67)	-2.421 (.017)	3.98 (.64)	3.40 (.75)	3.214 (.004)
지도방법	3.99 (.59)	3.88 (.65)	-1.009 (.315)	3.89 (.59)	3.50 (.69)	2.359 (.026)
보고서 작성	3.75 (.63)	3.88 (.65)	-1.125 (.263)	3.40 (.60)	3.40 (.68)	3.050 (.00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Table 5.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명)

특성		실습자태도		실습자만족도		실습내용의 적합성		실습에 대한 성취도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이론교육의 만족도	만족 (99)	4.46 (.54)	2.009	4.02 (.55)	2.498	4.00 (.55)	1.962	4.03 (.50)	1.444
	보통 (20)	4.20 (.52)	(.047)	3.66 (.58)	(.019)	3.73 (.68)	(.052)	3.85 (.55)	(.151)
대상자교육장소	분만실 (50)	4.50 (.54)	2.622	3.98 (.56)	3.005	4.01 (.49)	5.810	4.04 (.43)	10.363
	병동 (58)	4.41 (.50)	(.77)	4.02 (.58)	(.053)	4.01 (.62)	(.004)	4.08 (.48)	(.000)
	기타 (11)	4.09 (.55)		3.57 (.42)		3.41 (.49)		3.38 (.6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Table 6.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명)

특성		자신감		자아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학업성취 정도	우수 (34)	2.74 (.47)	2.499	2.85 (.20)	5.055	2.78 (.30)	3.119
	보통 (67)	2.61 (.24)	(.087)	2.70 (.26)	(.008)	2.61 (.33)	(.048)
	우수하지 못함 (18)	2.54 (.39)		2.64 (.38)		2.62 (.39)	
이론교육의 만족도	만족 (99)	2.66 (.37)	1.750	2.76 (.28)	2.188	2.67 (.35)	.473
	보통 (20)	2.55 (.21)	(.087)	2.63 (.23)	(.036)	2.64 (.34)	(.640)
대상자교육장소	분만실 (50)	2.67 (.43)	1.940	2.72 (.18)	3.406	2.64 (.32)	.481
	병동 (58)	2.66 (.27)	(.148)	2.78 (.30)	(.037)	2.69 (.34)	(.619)
	기타 (11)	2.44 (.25)		2.55 (.42)		2.62 (.42)	

References

[1] Shin, Su-Jin, Yang, Eun-Bae, Kim, Gun-Hee, Kim, Yun-Ju, Jung, Dug-Yu, Hyung, Eun-Hee, Basic survey of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Korea Nurses Association, 2014.

[2] Kim, Jeung-Im, Kang, Hee-Sun, Park, So-Mi, Ahn, Suk-Hee, Current Status of Women's Health Nursing Practicum and Direc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20, No. 2, pp. 173-183, June 2014.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5.

[4] Chun, Na-Mi, Noh, Gie-Ok, Quality Improvement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 Focused on Delivery Room Clinical Practice, J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6, No. 7, pp. 513-521. 2016.

[5] Kim, Yun-Mi, Chun, Na-Mi, Lee, Eun-Hee, Cho, In-Sook, Ahn, Suk-Hee, Kim, Jeung-Im, Hur, Myung-Haeng, Lee, Sook-Hee, Lee, Hae-Kyung, Chung, Chae-Weon, Kang, Nam-Mi, Kim, Hae-Won, Stud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in Women's Health Nurs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7, No. 3, pp. 225-242, September, 2011.

[6] Kendall, S., & Bloomfield, L.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1, No. 2, pp. 174-181. 2005.

[7] Choi, Eun-Young, Kim, Gun-Ho,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Self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Nephrology Nurses, The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2, No. 3, pp. 345-355. 2000.

[8] Kim, Hee-Su,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Vol. 19, pp. 101-115. 2004.

[9] Kim, Nam-Ik, Chun, Bo-Ae, Choi, Jung-Ik, A case study of flipped learning at college: focused on effects of motivation and self-efficacy, J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0, No. 3, pp. 476-492, 2014.

[10] Lee, Eun-Kyu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ternet-based distance learning system. for health sc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9.

[11] Lee, Sung-Sim, Kwon, Mi-Kyung, Effects of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Skill Competency,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55-263, 2016.

[12] Park, Jae-Hyun, Jung, Eui, Ko, Jin-Kyung, Yoo, Hyo-Bin, Delivery training for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using birth simulator, Korean J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51, No. 9, pp. 950-956. September, 2006.

- [13] Lee, Hwa-Jin, Nurses' Question and Explanation Strategi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Cancer Patients, Korean Acad Fundam Nurs, Vol. 18, No. 2, pp. 247-257, May, 2011.
- [14] Cho, Mi-Hye & Kwon, I. 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pp. 143-154, 2007.
- [15] Youn, Mi-Sun, Cho, Ju-Yeon, Experience and Confidence on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in Delivery Room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s, J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2(B), pp. 909-921, April, 2010.
- [16] Cho, Mi-Hye,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confidence on clinical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5.
- [17] Ju, He-Kyou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education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nursing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5, No. 1, pp. 106-117, 1999.
- [18] Kim, Hyeon-Mi,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399-408. 2009.
- [19] OH, Yun-Kyu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5.
- [20] Kim, Jung-ae,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using a TBL on Self efficacy and Self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26-43, 2017.
- [21] Kim, So Young, Lim, Sun Young, Choi, Hye m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4, pp. 59-64, November, 2015.

※ 이 논문은 2015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3015-01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